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이성훈*

【목차】

- I. 머리말
 - II. 가창 기연과 구연 현장의 상황에 의한 사설의 분류
 - III. 구연 현장의 상황과 노 젓는 동작에 따른 사설의 유형
 - IV. 맺음말
-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현장론적인 입장에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가창기연과 구연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사설을 분류하고 분석한 다음에, 구연 현장의 상황과 노젓는 동작에 따른 사설의 유형을 나누는 데 있다. 〈해녀노젓는소리〉는 가창기연에 따라 어떤 사설이 언제 불리는가, 구연되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어떤 사설이 어떻게 불렸는가 등의 실상이 밝혀져야 제대로 분석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녀노젓는소리〉는 가창기연은 뱃물질을 오가거나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노젓는 노동이고, 그 구연 장소가 조류와 풍향·파고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가창 기연과 구연 현장의 상황을 중시하여 사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창 기연을 기준으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면 ① 물질하러 나갈 때, ② 물질하고 돌아올 때, ③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면 ① 激波와 逆風일 때, ② 大波와 無風일 때, ③ 小波와 無風일 때, ④ 小波와 順風일 때, ⑤ 목[項]을 지나갈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숭실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구연 현장의 상황과 노 짓는 동작에 따라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파도가 세거나 노를 빠르게 저어야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파도가 잔잔하거나 노를 천천히 저을 때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여씨, 저러저러, 저러백여라’와 같은 가락 없는 후렴을 부르고 사설은 발산형 사설보다 수렴형 사설을 중심으로 가창한다. 사설 내용이 노 짓는 일을 독려하고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씨’와 같은 가락 있는 후렴을 부르고 사설은 수렴형 사설보다 발산형 사설을 중심으로 가창한다. 구연 현장인 바다가 안정된 상황이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애정 문제 같은 생활 감정을 노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제어 : 해녀노젓는소리, 가창기연, 구연 현장, 해녀, 사설의 분류, 사설의 유형, 후렴, 바다

I. 머리말

<해녀노젓는소리>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본토 해안에서 무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물질 작업’을 하러 돛배를 타고 물질 작업 장소까지 오갈 때나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배의 양옆에서 짓는 노인 ‘젓걸이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여느 노동요의 구연 현장은 집안·논밭·산 등의 물이기에 구연 현장의 상황이 고정적이라고 한다면, <해녀노젓는소리>의 구연 현장인 바다는 조류와 풍향·파고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구연 현장의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처럼 <해녀노젓는소리>는 가변성이 많은 바다에서 가창되는 노동요이기 때문에 구연 현장의 상황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이 본고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65)에 수록한 <해녀노래>, 즉 <해녀노젓는소리> 199편을 사설에 드러나는 제재를 기준으로 ① 해녀작

업 출발의 노래 ② 해녀작업의 노래 ③ 해녀 출가의 노래 ④ 해녀 출가생활의 노래 ⑤ 사랑노래 ⑥ 해녀들의 여정 등으로 분류했다. <해녀노젓는소리>의 제재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해녀작업자체를 역점을 두어 위 ①~⑥의 제재를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¹⁾ 이 분류는 <해녀노젓는소리>가 해녀들이 돛배를 타고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라는 가창기연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설 내용인 해녀작업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분류한 것이다.

<표 1> 제재에 의한 분류

제재	제재 분류
①해녀작업출발	I.배 타 나감 II.헤엄쳐 나감
②해녀작업	I.잠수작업 II.해산물채취 III.고역토로 IV.탄로·무상 V.작업목적
③해녀출가과정	I.이항출가 II.노 젓는 기백 III.배와 뱃사공 IV.출가하는 뱃길V.출가의 목적
④해녀출가생활	
⑤애정	I.상사 II.연모
⑥여정	I.신세토로 II.일상정의

변성구는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서 채록된 13편의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을 기능적 상황과 관련지어 사설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여 제주의 해녀들에 의해 공감대가 형성된 사설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을 통한 유형 구조와 의미 단락별 사설 유형과 내용을 고찰하였다. 의미 단락의 분석을 통한 사설의 유형 구조는 기능 관련 사설이 중심을 이루고 창자에 따라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사설이 중간에 삽입되는 구조라고 하면서 내용의 전개 순서는 대체로 해녀작업

1)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89면.

의 출발+해녀작업의 실태+출가 과정과 출가 생활+해녀들의 서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의미 단락별 사설 유형은 기능적 사설의 유형과 서정적 사설의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기능적 사설의 유형은 의미 단락별로 ‘해녀작업의 출발·해녀작업의 실상·해녀작업의 기원·해녀작업의 한계·해녀작업의 고통·노젓는 기백·노젓는 바다의 상황·노젓는 고통·출가 뱃길·출가 생활’ 등으로 나누어 기본형의 추출을 시도했다. 반면에 서정적 사설의 유형은 ‘신세 한탄·이별·연모·인생무상·가족걱정·기타(전설)’ 등을 주제로 하면서 다른 유형의 민요와 시가 작품의 사설과 교섭되거나, 개인적 창작자의 능력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고 있음을 밝혔다.²⁾

김영돈은 제재를 기준으로 사설을 분류한 반면에, 변성구는 의미 단락별 공통 표현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는 <해녀노젓는소리>가 해녀들이 돛배를 타고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라는 가창 기연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설 내용만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장론적 입장에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고 유형을 나누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가창기연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다음에, 구연 현장의 상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구연 현장의 상황과 노 젓는 동작에 따른 사설의 유형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해녀노젓는소리>는 가창기연에 따라 어떤 사설이 언제 불리는가, 구연되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어떤 사설이 어떻게 불렸는가 등의 실상이 밝혀져야 제대로 분석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 유형 분석』,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81~134면.

Ⅱ. 가창 기연과 구연 현장의 상황에 의한 사설의 분류

<해녀노젓는소리>의 가창기연(歌唱機緣)은 해녀들이 물질 작업하러 뚝배를 타고 물질 작업장까지 오갈 때나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노 젓는 노동이다. 현장론적 입장에서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을 가창기연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① 물질하러 나갈 때, ② 물질하고 돌아올 때, ③ 본토로 출가할 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구연 현장의 상황을 기준으로 사설을 분류하면 ① 激波와 逆風일 때, ② 大波와 無風일 때, ③ 小波와 無風일 때, ④ 小波와 順風일 때, ⑤ 목[項]을 지나갈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설의 제재는 크게 노동 실태와 서정 표출로 나눌 수 있다. 사설 내용 자체에 역점을 두어 제재를 분류하면, 노동실태의 제재는 노 젓기, 해산물 채취, 물질 작업 실태, 출가 항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서정 표출의 제재는 출가 과정, 출가 목적, 출가지 생활, 물질 작업 목적, 인생무상, 탄로, 신세한탄, 애증, 이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歌唱機緣과 口演 現場의 狀況에 의한 사설의 분류

가창 기연		구연 현장의 상황
I. 물질하러 나갈 때		① 激波와 逆風일 때
		② 大波와 無風일 때
II. 물질하고 돌아올 때		③ 小波와 無風일 때
III. 본토로 출가할 때		④ 小波와 順風일 때
		⑤ 목[項]을 지나갈 때
제재	제재 분류	
노동 실태	노 젓기, 해산물 채취, 물질 작업 실태, 출가 항로	
서정 표출	출가 과정, 출가 목적, 출가지 생활, 물질 작업 목적, 인생무상, 탄로, 신세한탄, 애증, 이별, 연모	

1) 가창기연에 의한 사설의 분류

가창기연을 기준으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면 ① 물질하러 나갈 때, ② 물질하고 돌아올 때, ③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물질하러 나갈 때

[1]

이여사나	우리 배가
전복 좋은	여 곳으로
미역 좋은	돌 곳으로
가게 협써	이여사나 ³⁾

[2]

수덕 좋은	선왕님아
우리 배랑	가는 달랑
매역 좋은	여 곳으로
우미 좋은	여 곳으로
가게나 협써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⁴⁾	

[3]

요 년 저 년	젊은 년달아
이 궁텨이	놓았다가
밭을 살레	집을 살레
어서나 지라	노나 빵빵
지여나 봐라	이여사나

3)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249~250면.

4) 이성훈, 앞의 글, 2002, 260면.

저라 백여라
어서 지고 갈 디 가지⁵⁾

[4]

앞 산천아 날 땡겨라
뒷 산천아 날 밀어라
어서야 속히 지고 가자
물때나 점점 늦어 간다
이여사나 이여도사나⁶⁾

[5]

이네 잠수들아 작업 준비들
어서나 허자 흔착 손에
두렁박 들렁 흔착 손에
테왁을 심영 이어도 사나 이
흔착 손에 빗창을 심영
흔질 두질 들어가니 이
전복을 딸까 구쟁일 딸까
이어도 사나 이 저라 배겨 이
저라 처라⁷⁾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미역·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러 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라·전복 등의 복족류(腹足類, Gastropoda)를 채취하러 가는 경우이다. 필자가 강원도 속초시에 정착한 제주 출신 해녀 이기순으로부터 채록한 바에 의하면, 194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의 경우에 해녀들이 미역

5) 이성훈, 앞의 글, 2002, 261면.

6) 이성훈, 앞의 글, 2002, 261면.

7) 제주시(조영배 채록), 『제주의 향토민요』, 제주시청, 2000, 93면.

채취하러 갈 때는 경찰에서 나와 돛배들을 일렬로 정렬시킨 후에 총을 쏘아서 작업 출발 신호를 알렸다고 한다.⁸⁾

따라서 물질 나갈 때는 [1]·[2]처럼 해산물이 풍부한 어장에 도달하기를 소망하거나 기원하는 사설이 많다. 해조류 채취는 정해진 어장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3]과 같이 어장에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노 젓는 일을 독촉하는 사설들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복족류 채취는 어장의 상황에 따라 소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처럼 좋은 어장에 도달하려는 소망을 기원하거나, [4]처럼 물때에 맞춰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노 젓는 일을 독촉하기보다는 권유하는 사설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복족류를 채취하러 갈 때는 물질 작업장에 다다르면 [5]처럼 물질 작업 준비를 지시하는 내용의 사설을 노래하기도 한다.

(2) 물질하고 돌아올 때

[6]	
우리 배에	서낭님이
만선을	시겼구나
고맙수다	고맙수다
오늘은	만스망일언
많이 흐고	친금만금
벌어시메	기십 좋게

8) 제보자, 이기순(李基順, 女, 1922년 4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001년 12월 23일 필자 채록. 제보자는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에서 출생하여 27살에 초용으로 부산에 출가 물질을 나왔다. “우리 고향은 이제 그 때 시절에도 순경이 있더라고. 널 메역 조문헌다 허믄 오닐 큰축항에, 또 저 동축항 서축항에서 줄을 메여, 줄을 메여가고, 이제 배가 다 거기 모여실 꺼 아냐. 모여시며는 총을 팡 허며는 서로 앞의 갈라꼬 허다가 옷도 안 입고 물에 빠진 사름 있고, 수경도 안 썩고 물에 빠진 사름 있고 그렇게 해.”(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승실어문』 제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484면.)

네 짓이라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쳐라쳐라 ⁹⁾

[7]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골목마다	연기가 나고
하루 종일	애썼으나 하
번 거든	기가나 맥혀
어서 지고	집의 가서 허
우는 애기	젓을 주고
병든 낭군	밥을 주자
이여도사나 하	이여사 하 ¹⁰⁾

[8]

좁수나 전성	가련하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
하루 종일	번 것은
기가맥히고	못 살겠구나 ¹¹⁾

[9]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저 바다엔	은과야 금은
철대같이	갈렸으나
높은 낭에	열매로다
낮은 낭에	까시로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¹²⁾

9) 필자 채록,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양송백(여, 1905년생)

10) 필자 채록,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001. 12. 23, 이기순(여, 1922년 제주도 조천읍 북촌리에서 출생)

11) 필자 채록,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양송백(여, 1905년생)

12)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

해조류의 채취와는 달리 복족류의 채취량은 해녀 개개인의 물질 기량¹³⁾이나 어장이 좋고 나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물질하고 돌아오면서, 수확이 많았을 때는 [6]과 같이 기쁨과 의욕에 찬 사설을 노래하지만, 수확이 적을 때는 [7]과 [8]과 같이 신세를 한탄하며 실의에 찬 사설을 노래하기도 한다. 또한 바다 속에는 많은 양의 수산물이 깔려 있지만 자신의 물질 기량이 모자라서 채취할 수 없을 때는 [9]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한다.

[6]은 물질하고 돌아올 때 만선이 된 기쁨을 노래했다. 전반부에는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게 된 것은 선왕님의 神意에 의한 것으로 여겨 감사하는 신앙성이 드러나 있고, 후반부에는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게 된 기쁨에 의욕에 차서 노를 짓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¹⁴⁾

[7]과 [8]은 아침 일찍 바다에 나가서 저녁 무렵까지 물질을 해도 번 것은 보잘것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7]은 행여 배가 고파서 자신을 찾으러 올고 있을지도 모를 자식과 저녁밥을 굶고 자신을 기다리는 병든 남편을 염려하는 애절한 정이 드러난다. 그런데 [8]은 별이가 부진한 원인을 어장의 좋고 나쁨, 자신의 물질 작업 능력의 우열에서 온다고 여기지 않고 전생의 인과적 숙명에서 찾고 있다.

[9]는 물질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물질 기량이 모자람을 한탄하고 있는데, 바다 속에는 무진장 해산물이 깔렸는데도 수심이 깊어 채취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높은 나무에 열매’로, 수심이 얕아도 장애가 많아 해산물 채취가 어렵고 힘든 일임을 ‘낮은 나무에 가시’라고 비유하고 있다.

학회, 2002, 262면.

13) 물질 기량에 따라 해녀 계층을 上軍·中軍·下軍으로 구분한다. 상군 중에서도 특출하게 뛰어난 해녀를 大上軍이라 한다.(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92면.)

14)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백록어문』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327면.

(3) 본토로 출가할 때

[10]

저러저러	어기야저러
요 네를 지고	어덜 가리
진도야 바당	한 골로 가자
이여사나 ⁵⁾	

[11]

성산포야	잘이시라
맹년이철	춘삼월나민
살아시민	상봉이여
죽어지민	영이별이여 ⁶⁾

제주도 해녀의 우수한 재능이 도외에서 발휘된 것은 1900년경부터인데 처음에 일본에 가고 얼마 후 나잠어업의 전혀 미개척지였던 육지 연안으로 진출하였다. 그녀들은 보통 봄 2월경 帆船에 20명에서 30명이 한 조가 되어 타서 1명 또는 2명의 남자 사공을 거느리고 우선 전라남도 해안으로 간다. 거기서부터 차츰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9월 하순에는 청진에 도착, 여기서부터 汽船으로 조 수확기까지는 귀도하는 것이었다.¹⁷⁾ 경남·강원·함경 각 도 및 일본 방면의 출어는 발동선편에 의해 즉각 목적지로 향하는 자도 있으나 대개는 기선편으로 부산에 이르고 影島의 근거지로부터 목적지에 출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¹⁸⁾

15)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238면.

16)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227면.

17) 泉靖一 著, 洪性穆 譯, 『濟州島』(1966),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185~186면.

18) 田口禎熹, 洪性穆 譯, 『濟州島の海女』(『朝鮮』 218號, 昭和 8年(1933) 7月), 『濟州島の 옛 記録-1878~1940-』,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81면.

제주도로 귀향할 때는 기선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본토의 出稼對象地로 갈 때는 帆船을 이용하여 갔던 것일까. 그것은 본토의 출가지에서 뱃물질하러 갈 때 돛배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¹⁹⁾ 필자가 채록한 바에 의하면, 양송백(제주도 성산읍 온평리, 1905년 우도에서 출생)은 18세가 되던 1923년에 초용으로 巨濟島로 出稼했는데, 사공 3명과 해녀 15명이 범선을 타고 바람이 불면 돛을 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橈를 다섯 채 놓아서 橈를 저으며 7일만에 거제도 미날구미(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근포마을의 옛지명)에 도착했다고 한다.²⁰⁾

근세사회의 濟·京 海路는 楸子島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所安島를 경유해서 珍島 碧波津을 거쳐서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해로였다. [10]은 제주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할 때, 맨 처음 기착지가 전라남도 진도였음이 드러난다.²¹⁾

[11]은 성산포항을 떠나 본토로 물질 나가는 해녀들이 생활을 위해 목숨을 건 悲壯을 역연히 노래하고 있다.²²⁾ 내년 이맘 때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출가 기간이 일 년 여에 이르며,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경우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목숨을 건 해녀들의 생존의식이 나타나 있다. 물질 작업을 하는 도중에 조그마한 실수가 있거나, 상어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돛배를 타고 항해 중에 풍파를

19)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사설과 현장성』, 『온지논총』 제8집, 온지학회, 2002, 191면.

20)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백록어문』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311면.

21) 해녀들이 노를 저어 본토 出稼 對象地로 갈 때 어떤 海路를 이용했는지, 바다에서 겪었던 체험과 구연의 현장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사설과 현장성』, 『온지논총』 제8집, 온지학회, 2002, 189~201면 참조.

22)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93면.

만났다면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이 고향을 떠나 본토로 출가할 때는 [11]과 같은 사설의 노래를 구연하게 되었다고 본다.

2) 구연 현장의 상황에 의한 사설의 분류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면 ① 激波와 逆風일 때, ② 大波와 無風일 때, ③ 小波와 無風일 때, ④ 小波와 順風일 때, ⑤ 목[項]을 지나갈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激波와 逆風일 때

[12]

이여도사나 어허	이여도사나
브름 불영	절 갠 날 싯느냐
브름 부난	파도가 씨다
어서 젓영	어서 나가자
즈낙이나	붉은 때 흑영
어린 애기	젓을 주라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²³⁾

[13]

탕맹기는	칠성판아
잉영사는	맹정포야
문홀것이	요 일이여
모진 광풍	불지 말라 ²⁴⁾

23) 필자 채록,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양송백(여, 1905년생)

24) 진성기, 『제주도민요』 제3집, 성문프린트사, 1958, 88면.

[14]

이여 사나 흥	이여도 사나 흥
앞벼름은	고작굴이 불어 오곡
뒷벼름은	없어나 지네
이여 사나 흥	이여도 사나 ²⁵⁾

배가 가는 쪽으로 부는 바람인 순풍이 불면 돛을 달고 항해하면 된다. 하지만 역풍이 불면 노를 저어야 한다. 특히 역풍이 불거나 파도가 세면 노 젓는 일이 더욱 힘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힘차게 노를 저으려면 가락은 역동적이고 사설은 직설적이게 된다.

[12]는 물질하러 나갈 때나 돌아올 때 바람이 불어 파도가 센 구연 상황에서 노 젓는 노동 실태를 노래하고 있다. “벼름불을 / 절갠날짓느냐(바람 불어서 파도가 잔잔한 날 있느냐)”하고 반문법을 쓰고 있다. 서술형보다 의문형, 곧 반문법을 씀으로써 그 억양은 드세어지고 力動感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²⁶⁾ 따라서 바람이 거슬러 불고 파도가 세고 거친 상황에서는 자칫 해난 사고의 두려움을 갖기 쉬운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잔 날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세므로 빨리 노를 저어야 빨리 갈 수 있다고 자문자답함으로써 공포심을 떨쳐버리고 노 젓는 데 혼신의 힘을 쏟으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²⁷⁾

바다에서는 홀연 광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배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13]은 타고 다니는 배를 七星板에, 달고 다니는 돛을 銘旌布에 비유한 것이다.

[14]는 순풍이 불다가 풍향이 바뀌어 역풍이 불어오는 상황을 노래하고

25) 진성기, 『제주도민요』 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69면.

26) 김영돈, 「해녀노래의 기능과 사설분석」, 『흔민 최정여박사충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177면.

27)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백록어문』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327면.

있다. 배가 가는 쪽으로 부는 바람인 順風이 불면 돛을 달고 간다. 하지만 逆風이 불면 노를 저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와 [13]과 [14]는 순풍이 불 때가 아니라, 격파가 치고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 노를 저어 가는 현장을 노래한 것이다.

(2) 大波와 無風일 때

[15]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바람통을		마셨는지
등긋등긋		잘도 썬다
기름통을		마셨는지
미끌미끌		잘도 간다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²⁸⁾

[16]

…전략

A	이여씨		이여씨
B		어기여라	어기여라
A	요넛덩이		뿔을먹고
B		이여씨	이여도씨나
A	등긋등긋		술찌싱고
B		이여도씨나	이여도씨니
A	벼름통을		먹어싱가
B		어기여라	어기여라
A	구름통을		먹엇던가
B		이여씨	이여씨
A	등긋등긋		잘올라온다

28)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261면.

B	이여도싸나	이여짜
A	이여라차	이여차
B	쳐라쳐라	넘어나간다
A	잘도간다	요년달아
B	잘도간다	요년달아
A	일심동력	젓어나줍서
B	이여짜	이여짜
A	이여짜	이여짜
B	이여짜	이여짜
A	선두사공	뱃머리만
B	어기어	어기어
A	들려줍서	젓거리로
B	어기여라	어기여라
A	우경간다	이여짜
B	이여도싸나	이여싸나
A	어기여차	소리엔
B	어기여	어기여라
A	베올려	가는구나
B	베올려	가는구나
A	뒤여차	소리엔
B	어기여차	어기여
A	베가느러	가는구나
B	어기여	어기여라
A	어기요라	이여짜
B	어기여	이여짜
	하략... ²⁹⁾	

파도를 보면 길게 줄을 지어 큰 또는 작은 산맥과 같이 들어오는 파도줄
기를 黑山島에서는 ‘농울 · 녕울 · 놀’이라고 한다.³⁰⁾

29)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25~226면.

물결과 관계된 보길도의 방언에는 ‘물결, 낫결, 뉘, 놀, 나부리’ 등의 말이 있다. ‘놀’은 너울의 방언형으로 바다 가운데서 태풍 등으로 밀려온 큰 파도를 뜻하며, 가끔 ‘나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뉘’는 잔잔한 물결 주로 바닷가에 부딪치는 것을 일컫는다. ‘물결’은 뉘보다는 크고 놀보다는 작은 것을 뜻한다. 주로 바다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를 뜻한다. ‘낫결’은 물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뜻함이 일반적이다. 이밖에도 ‘물살’과 ‘물발’이라는 말이 쓰인다. ‘물살’은 물이 흐르는 힘을 뜻하고 ‘물발’은 물이 흐르는 속도를 뜻한다. 따라서 ‘물살이 시다(세다)’와 ‘물발이 싸다(빠르다)’가 각각 다르게 쓰인다.³¹⁾

제주도에서는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을 ‘놀,³²⁾ 낫고개³³⁾’라고 한다. ‘놀’은 ‘누·너울’이라 하기도 한다.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덩이는 ‘눗둥이·넵덩이³⁴⁾’라고 한다. 또한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소리는 ‘눗소리·너울소리³⁵⁾’라고 한다. 흑산도나 보길도, 제주도에서 다시 말해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을 ‘놀’이라 한다.

[15]는 구연 현장의 상황을 의태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둥긱둥긱’과 ‘미끌미끌’이 그것이다. 전자는 사나운 큰 물결덩이가 바람을 받아서 둥긱 둥긱 일어나 파도가 거세진다는 것을 ‘바람통을 / 마셨는지 // 둥긱둥긱 / 잘도 썬다’라고 표현하여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후자는 큰 물결덩이를 타고 돛배가 미끌어지듯이 미끌미끌 잘 나간다는 것을 ‘기름통을 / 마셨는지 // 미끌미끌 / 잘도 간다’라고 표현하여 구연 현장인 바다에서 배가 달리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30) 김재원, 『서해도서조사보고』, 을유문화사, 1957, 153면.

31) 김웅배, 『전라남도방언연구』, 학고방, 1998, 293~294면.

32) 제주방언연구회,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105~106면.

33) 제주방언연구회, 앞의 책, 1995, 109면.

34) 제주방언연구회, 앞의 책, 1995, 109면.

35) 제주방언연구회, 앞의 책, 1995, 109면.

[16]은 [15]의 사실 내용을 확장시켜 구체적으로 노래하였다. [16]의 A가 부른 사실만을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이여씨	이여씨
A 요눗텅이	뫼을먹고
A 둥긱둥긱	술찌싱고
A 브롬통을	먹어싱가
A 구름통을	먹엇딘가
A 둥긱둥긱	잘올라온다
A 이여라차	이여차
A 잘도간다	요년달아
A 일심동력	젓어니줍서
A 이여씨	이여씨
A 선두사공	뱃머리만
A 돌려줍서	젓거리로
A 우경간다	이여씨
A 어기여차	소리엔
A 배올러	가는구나
A 뒤여차	소리엔
A 배가느려	가는구나
A 어기요라	이여씨

사나운 큰 물결덩이가 바람을 받아서 둥긱둥긱 일어나 파도가 거세진다는 것을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노래한다. 즉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덩이인 ‘눗텅이’가 무엇을 먹고 둥긱둥긱 살졌는가? 자문하고, 바람통을 먹었는지 구름통을 먹었는지 둥긱둥긱 잘 올라온다고 자답한다. 큰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녀들에게 일심동력하여 젓걸이노를 저어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뱃사공에게는 뱃머리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해녀들에게는 억척스럽게 힘을 써서 젓걸이노를 저어서 가자고 독촉한다. 또한 어기여차 소

리에는 물결의 가장 높은 부분인 ‘물마루(crest)’로 배가 올라가고 뒤여차 소리에는 ‘물마루 사이의 골(trough)’로 배가 내려간다고 노래한다. 즉 물마루로 올라갈 때는 노를 당기고 물마루 사이의 골로 내려갈 때는 노를 민다는 것이다.

바람결에 따라 일어나는 물결인 風浪이 일면 돛을 달고 항해를 하면 된다. 하지만 大波와 無風일 때는 노를 저어야만 했다. 풍랑의 마루는 뽀족하고 너울의 마루는 둥그스름하다. 그러기에 바람통을 마셨는지 구름통을 마셨는지 둥긋둥긋 파도가 세다고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15]와 [16]은 풍랑이 칠 때가 아니라, 바람은 불지 않고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덩이인 ‘돛둥이(돛덩이)’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노를 저어 가는 현장을 노래한 것이다.

(3) 小波와 無風일 때

[17]

요 목 조 목	울돌목가
우리 베는	잘 올라간다
잘잘 가는	갓나무 베야
술술 가는	소나무 베야
하루 속히	돈 벌어서
우리나 제주	빨리 가자
이여도사나	저라저라
어기야디야	잘 올라간다
힘을 모아	젓어보자
이여사나 ³⁶⁾	

[18]

우리베는	잘도나간다
------	-------

36) 이성훈, 앞의 글, 2002, 243면.

솔솔가는	소나무베야
잘잘가는	잣나무베야
어기농창	가는베야
정심참도	늦어진다
어서나가자	이여도사나 ³⁷⁾

반복(repetition)은 문장의 뜻을 강조하고 흥취나 묘미를 돋우기 위하여 같은 어구나 유사한 어구를 되풀이하는 방법³⁸⁾인데, 반복은 민요에서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³⁹⁾ 내용적으로는 정서 및 旋律的 효과를 위해서 구사되는 것이 주이나, 가끔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도 사용된다.⁴⁰⁾

[17]은 ‘솔솔’과 ‘잘잘’의 동일한 음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주고 있다. ‘가는’과 ‘나무베야’도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된다. ‘잘잘’은 합성어인 ‘잣나무’의 어근 ‘잣’을 변이시켜 ‘잘잘’로, ‘솔솔’은 합성어인 ‘소나무’의 어근 ‘솔’을 ‘솔솔’로 반복하여 물질 작업장까지 노를 저어 가는 배의 속도감을 음성 상징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창자 개개인의 구연 능력에 따라 “잘잘가는 잣나무 베야 / 솔솔가는 솔나무베야”⁴¹⁾, “우리야배는 솔나무베난 / 솔락솔락 잘도나간다”⁴²⁾처럼 변이시켜 구연되기도 한다. 역풍이 불거나 파도가 셀 때는 노 젓기도 힘들고 배의

37) 필자 채록, 제주도 성산읍 은평리, 1986. 7. 29, 양송백(여, 1905년생)

38) 문덕수, 『신문장강화』, 성문각, 1978, 317면.

39)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03.
 “Patterns of repetition can provide structure and coherence to an oral poem - a necessary aspect in a medium as ephemeral as the spoken or sung word - but need not lead to monotony. Repetition in itself can lead to variation both in the intervening non-repeated units, and - very effectively - in strategic variation within the repeated element itself.”

40)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68면.

41)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민속원), 1993, 221면.

42)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265면.

속력도 느려지기 때문에 노 젓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에 반해서,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멎었을 때는 노 젓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배의 속력도 빨라지기 때문에 [17]과 같이 ‘하루 속히 돈 벌어서 우리의 고향 제주로 빨리 가자’라고 가창자의 개인적 정서까지 노래할 수 있게 된다.

[18]은 천천히 노를 저으면 점심 때를 넘겨서 물질 작업 장소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노를 빨리 저어 가자는 것은 파도가 잔잔한 상황에서 구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17]과 [18]은 작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노를 저어가는 현장을 노래한 것이다. 개인적 서정을 표출한 사설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구연 현장인 바다가 잔잔한 상황이기예 가능한 것이다.

(4) 小波와 順風일 때

[19]

순풍 불민	돛을 들고
만리 풍파	헤쳐가고
무궁 무진	나가 보자
요배 타고	버신 돈은
부모 자식	살려 보자 ⁴³⁾

[20]

우리가	살며는
뗏백년	살리야
아팽이나	살았자
단팔십	흔이여
불었다	불었다
동남풍이	불었다 ⁴⁴⁾

43) 진성기, 『제주도민요』 제3집, 성문프린트사, 1958, 79면.

[21]

낭을 베세	1낭을 베여
죽도섬에	낭을 베여
자그만	베를 보아
낙동강에	띄워 놓고
넘도 타고	나도 타고
겸사겸사	유람가세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⁴⁵⁾	

해녀들이 뱃물질을 오갈 때 역풍이 불면 노를 저어야 했지만 [19]와 같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인 순풍이 불면은 노를 뱃과락⁴⁶⁾에 올려 놓고 돛을 달고 항해했다. [20]은 무풍이거나 역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노를 젓다가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가창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팔십 살 정도밖에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노를 저어 물질 작업장으로 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하지만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더 이상 노를 젓지 않고도 돛을 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하기에 ‘불었다 불었다 동남풍이 불었다’라고 반복하여 노래한다. 인생은 유한하다고 여기던 탄식은 기쁨으로 전환된다.

파도가 잔잔하면서 순풍이 아주 약하게 불어올 때는 돛을 달고 노를 젓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바다의 상황에서 해녀들은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마치 유람선을 탄 것과 같은 안도감을 맛볼 것이다. [21]은 잔잔한 바다에서 순풍에 돛 달고 임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뱃놀이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44) 진성기, 앞의 책, 1958, 85~86면.

45) 이성훈, 앞의 글, 2002, 255면.

46) 거룻배의 좌우현 위쪽에 바깥으로 둘러 붙여 있는 좁은 공간. 노·돛·돛대 등을 보관한다.

따라서 [19]와 [20]과 [21]은 작은 파도가 치고 순풍이 부는 상황에서 노를 저어가는 현장을 노래한 것이다. 개인적 서정을 표출한 사설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구연 현장인 바다가 작은 파도는 치지만 순풍이 부는 상황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5) 목[項]을 지나갈 때

[22]

…전략	
요목저목	홀돌목
허리나 알루	저 바당은
수왕수왕	위염햄져
이여도 일심	동녘허영
저 고비만	넘겨나노케
이여라	디여라
지여라 가자	이여사나 ⁴⁷⁾

[23]

죽은 배에	짐 하영 시견
진도 밧섬	한골로 가난
선계 떡을	생각은 엇고
이내몸 살을	걱정이여 ⁴⁸⁾

[24]

이목저목	지드리든
울단목이	당도훈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좁은목에	베락치듯

47) 『백록어문』 제14집, 백록어문학회, 1998, 273면.

48)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237면.

넙은목에	번개치듯
젓이라	젓어보라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⁴⁹⁾

[25]

…전략	
손당오름	치들아 보난
죽은 베에	짐 하영 시견
추즈 과탈	양 새에 드난
큰 오름은	아방을 삼곡
죽은 오름은	어멍을 삼안
선계 먹을	근심 안혹곡
이내뎡 살을	근심이라라 ⁵⁰⁾

[26]

…전략	
우리성제	삼성제드난
등도맞고	네도맞아
그만흐믄	홀만흐다
쿵쿵지라	쿵쿵지라
흔머들랑	젓엿가게
쳐라쳐	쳐라쳐라
하략… ⁵¹⁾	

[27]

…전략	
치를잡은 으으	신주야사공 으으
뱃머리만 어어	발루와니주소 으으

49)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민속원), 1993, 264면.

50)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236면.

51)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민속원), 1993, 263면.

젓거리로 으으	젓어간다 어허
이어싸나	이어싸나
하략...52)	

[28]

하뇌 심은	선두 사니
뱃머럭만	끌로 놓소
젓거리로	배를 몬다
이어사나	이어사나 ⁵³⁾

목[項]은 ‘수도(水道) · 해협(海峽) · 도(濤:渡) · 셋바다’라고도 한다. 양 쪽 2개의 해역 사이를 통하는 水路로, 灣과 外海와 연결되는 좁은 해협에서는 특히 조류가 빠르다. 流向 · 유속이 변하기 쉬우며, 渦流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우수영반도와 진도 사이의 명량해협(鳴梁海峽: 울돌목)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나루토[鳴門]해협보다 조류가 빠른 곳으로 유명하며, 이 충무공이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수군을 전멸시킨 전적지로 유명하다. 이들 해협은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빠른 조류가 발생하는 시간을 피하고 있다.⁵⁴⁾ 제주에서 목포나 해남군 지역으로 가는 지름길이 울돌목[鳴梁海峽]인데, 『海南縣志』에 보면, “명량은 물살이 세고 빨라 파도소리가 굉장하다. 양편에 돌산이 우뚝 서 있고 포구는 몹시 좁다.”⁵⁵⁾고 기술하고 있다.

[22]는 조류가 빠른 울돌목의 상황을 “요목저목 / 흘돌목 // 허리나 알루 / 저 바당은 // 수왕수왕 / 위염 햅찌 // 이어도 일심 / 동녘허영 // 저

52) 김영돈, 앞의 책, 1993, 221~222면.

53) 화북동 운영위원회 편, 『화북동 향토지』, 화북동 운영위원회, 1991, 239면.

54) (주)두산,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주)두산 출판BG, 2000.

55) 鳴梁 在右水營三里之地 而水勢悍急 波聲轟殷 兩邊石山簇立港口甚狹.....海南縣志 下同 鳴梁在碧波上流 海口甚狹 水勢激湍而鳴. (『李忠武公全書』 卷之十四 附錄六, 海南縣志).

고비만 / 넘겨나노케(이목 저목 울돌목. 허리 아래로 저 바다는 ‘수왕수왕’ 위험하다. 일심동력(一心同力)하여 저 고비만 넘겨나 놓자)”라고 노래하고 있다. 또한 [23]은 진도 바깥 섬의 깊은 골인 울돌목으로 들어가니 船價를 받을 생각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게 걱정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한편 [25]도 작은 배에 짐을 많이 실어서 관탈섬과 추자도 사이의 해협⁵⁶⁾에 들어가니 선가를 받을 근심은 안 하고 이 몸이 살아날 것을 근심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관탈섬과 추자도 사이의 해협과 ‘수왕수왕’ 소리를 내며 흐르는 울돌목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하려면 것걸이노를 짓는 해녀와 하노⁵⁷⁾를 짓는 사공이 一心으로 同力하여 노를 저어야만 했다. [27]과 [28]에서 알 수 있듯이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키[舵] 역할을 하는 노는 ‘하노’이고, 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노는 ‘것걸이노’인데, 사공이 하노를 밀 때 해녀들은 것걸이노를 당겨야만 직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⁸⁾ 예를 들어, 左舷과 右舷에 각각 1개씩 것걸이노가 있는 배일 경우, 우현 船尾에 있는 하노를 사공이 당길 때 좌현의 것걸이노는 당기고 우현의 것걸이노는 민다면 船首는 좌현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노를 저으면 선수가 우현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26]과 같이 것걸이노를 짓는 해녀들이 노를 같이 밀고 같이 당기야 등[背]도 맞고 櫓 짓는 동작도 일치하여 배가 잘 나가게 된다.

이처럼 본토로 출가물질을 나갔던 해녀들은 ‘울돌목’은 물살이 가장 세

56) 관탈섬과 추자도 사이의 해협이 위험한 물길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한 옛 기록들은 이성훈,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실과 현장성』, 『온지논총』 제8집, 온지학회, 2002, 181~210면 참조.

57) 뱃물질 나갈 때 바람이 불면 돛을 달고 가고, 바람이 멎거나 거슬러 불어오면 櫓를 저어서 갔다. 돛을 달고 갈 때는 ‘키[舵]’로, 노를 저어 갈 때는 ‘하노’로 돛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았다.

58) 하노는 일반적으로 船尾 右舷 쪽에 위치한다. 사공이 노를 당기면 船首는 우현 쪽으로, 밀면 선수는 좌현 쪽으로 움직인다.

고 빠른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나 본토에서 뱃물질을 오갈 때 물결이 높거나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면 해녀들은 울돌목에서 노 저어 본 경험을 떠올리며 ‘요목 조목 울돌목가’라는 사설을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요목 조목 울돌목가’라는 사설은 <해녀노젓는소리>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관용적 표현으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목[海峽]과 같이 물살이 세고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는 [24]와 같이 빠르고 힘차게, [26]과 같이 노 젓는 동작을 일치시켜서 노를 저어야만 했다.

따라서 [22]~[28]과 같이 목을 지나갈 때는 뱃사공과 해녀들이 일심동력으로 노를 저어야 했던 구연 현장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다. 목은 조류가 빠르고 유향과 유속이 변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와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목은 구연 현장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적 서정을 표출하는 사설을 노래하기보다는 뱃사공과 해녀들의 역할이나 노 젓는 행위를 독촉하거나 독려하는 지시적 사설을 주로 노래한다.

Ⅲ. 구연 현장의 상황과 노 젓는 동작에 따른 사설의 유형

김영돈은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65)에 수록된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동실태는 <맷돌·방아노래>가 3.4%이고 <해녀노젓는소리>가 51.3%의 비율이라고 했고, 민간의 情意는 <맷돌·방아노래>가 96.6%, <해녀노젓는소리>가 48.7%의 비율이라고 하였다.⁵⁹⁾ 이처럼 <맷돌·방아노래>가 <해녀노젓는소리>에 비해 노동실태를 노래한 사설이 극히 적은 이유는 노동과 구

59)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28면.

연현장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맷돌·방아노래>는 곡물을 갈기 위해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는 노동을 하면서 집안에서 부르지만, <해녀노젓는소리>는 노 젓는 노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부른다.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는 일이나 노 젓는 일이나 단순한 동작을 반복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맷돌·방아노래>에 비해 <해녀노젓는소리>는 노동실태를 노래한 사설이 많은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맷돌·방아노래>의 구연현장인 집안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데 반해, <해녀노젓는소리>의 구연현장인 바다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즉 바다는 풍향이나 풍속과 같은 기상 상태나 조류나 파도와 같은 해상 상태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실태를 노래한 사설이 많고 제재 또한 다양하다.

노동요는 노동 행위와 노래가 밀착된다. <맷돌·방아노래>의 경우는 창자가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어 곡물을 가루로 모두 분쇄하면 노동이 끝난다. 하지만 <해녀노젓는소리>의 경우는 가창자가 돛배의 노를 저어 물질 작업장에 도착하였다고 노동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해녀의 직업 노동인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작업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물질 작업장까지 돛배의 ‘젓걸이노’를 젓는 일이 1차적인 노동이라면,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작업은 2차적인 노동이다. 그러므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맷돌·방아노래> 사설보다 노동실태를 노래한 사설의 비율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중에 노동실태를 노래한 것은 고정적인데 반해 생활감정을 노래한 것은 사설의 넘나들이 심해서 유동적이다.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 내용이 노 젓는 노동이나 물질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수렴형 사설’이라 하고, 사설 내용이 노 젓는 노동이나 물질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창자의 심정에 따라 다른 요종의 사설을 임의로 차용하여 부르거나 가창자 개인의 체험과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으면

‘발산형 사설’이라 하기로 한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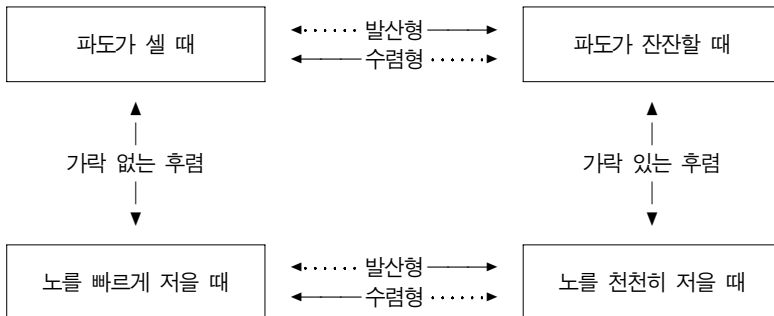
앞에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제재는 사설 내용 자체에 역점을 두어 크게 노동 실태 제재와 서정 표출 제재로 나누었다. 노동실태의 제재는 노 젓기, 해산물 채취, 물질 작업 실태, 출가 항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서정 표출의 제재는 출가 과정, 출가 목적, 출가지 생활, 물질 작업 목적, 인생무상, 탄로, 신세한탄, 애증, 이별, 연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 실태를 제재로 한 사설은 수렴형 사설에 속하고 서정 표출을 제재로 한 사설은 발산형 사설에 속한다.

수렴형 사설은 노 젓는 노동이나 물질 작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설 내용이 고정적이고 폐쇄적이다. 노동 실태와 사설 내용이 서로 일치함으로써 관용적 표현의 사설이 많다. 즉, 공식어구가 많아 사설의 유형화가 뚜렷하고 전승력 또한 강하다. 발산형 사설은 노동 실태와 직접 관련이 거의 없고 생활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에 사설 내용이 유동적이고 임의적이다. 다른 요종의 사설을 임의로 차용하여 부르는 만큼 사설의 넘나들이 심하다. 발산형 사설은 다른 요종의 사설을 차용한 경우와, 가창자의 개성이나 생애 및 체험과 정서에 따라 사설을 개인적으로 창작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60) 김영돈은 <해녀노래> 가락으로 <해녀노래>를 부를 때에만 따라붙는 고정된 사설은 ‘固定的 사설’, 다른 일을 하거나 놀면서 부르는 민요의 사설이 <해녀노래> 사설로 끼어 드는 것은 ‘流動的 사설’이라고 하였다.(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188면.) 이창식은 유희요의 연행조건과 작시원리를 논의하면서, 연행에서 놀이와 노래가 서로 일치하거나 노래가 놀이에 관련이 직접적이면 演行附合型 遊戱謠이고, 놀이와 노래가 일치하지 않거나 놀이에 따라 다른 현장의 노래를 임의로 끌어와서 불러지면 開放指向型 遊戱謠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이창식,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1999, 43면.) 변성구는 해녀노래의 의미 단락별 사설 유형을 고찰하면서, ‘기능적 사설’은 해녀작업 실태와 출가과정의 노젓는 일이 <해녀노래>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서정적 사설’은 다른 민요와 넘니들 수 있는 유동성이 있고, 창자의 개인적 체험의 정서를 주로 노래한다고 하였다.(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 유형 분석』,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99면.)

구연 현장의 상황과 노 짓는 동작에 따라 <해녀노짓는소리>의 사설 유형을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구연 현장의 상황과 노 짓는 동작에 따른 사설 유형



<해녀노짓는소리>의 사설을 노 짓는 노동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파도가 세거나 노를 빠르게 저어야 할 때는 ‘이여씨, 저러저러, 저러백여라’와 같은 가락 없는 후렴을 부른다. 또한 <해녀노짓는소리>를 부르다가 노 짓는 노동에 흥이 나거나 도취되었을 때도 가락 없이 후렴구만을 소리친다. 그러다가 의미 있는 사설을 부르기도 하는데, 사설 내용은 노 짓는 노동과 물질 작업 실태와 부합되는 게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발산형 사설보다 수렴형 사설을 중심으로 가창한다. 사설 내용이 노 짓는 일을 독려하고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파도가 잔잔하거나 노를 천천히 저을 때는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씨’와 같은 가락 있는 후렴을 부른다. 사설 내용은 수렴형 사설보다 발산형 사설을 중심으로 가창한다. 구연 현장인 바다가 안정된 상황이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애정 문제 같은 생활 감정을 노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⁶¹⁾

IV. 맺음말

이상에서 <해녀노젓는소리>를 현장론적인 입장에서 가창 기연과 구연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사설을 분류하고 분석한 다음에, 구연 현장의 노 젓는 동작에 의한 사설의 유형을 논의해 보았다. <해녀노젓는소리>는 가창 기연은 뱃물질을 오가거나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노 젓는 노동이고, 그 구연 장소가 조류와 풍향·파고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가창 기연과 구연 현장의 상황을 중시하여 사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창 기연을 기준으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면 ① 물질하러 나갈 때, ② 물질하고 돌아올 때, ③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질하러 나갈 때’의 사설은 해산물이 풍부한 어장에 도달하기를 소망하거나 기원하는 사설, 어장에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노 젓는 일을 독촉하거나 권유하는 사설, 물질 작업 준비를 지시하는 사설 등이 있다. ‘물질하고 돌아올 때’의 사설은 자식과 남편을 걱정하는 사설, 해산물을 많이 수확하게 된 기쁨이나 수확이 적어 신세를 한탄하는 사설, 해산물 채취의 어려움이나 물질 기량이 모자람을 토로하는 사설 등이 있다. ‘본토로 출가할 때’의 사설은 출가대상지로 가는 해로와, 생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출가 물질 나가는 목적 등을 노래한 사설들이 있다.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면 ① 激波와 逆風일 때, ② 大波와 無風일 때, ③ 小波와 無風일 때, ④ 小波와 順風일 때, ⑤ 목[項]을 지나갈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激波와 逆風일 때’의 사설은 파도가 세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노 젓는 데 혼신의 힘을 쏟으려는 사설이 주를 이룬다. 노 젓는 일이 힘들수록 가락

61)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에 발산형 사설이 많은 이유에 관해서는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교섭양상」, 『한국민요학』 제22집, 한국민요학회, 2008, 199~249면 참조

은 역동적이고 사설은 직설적이 되기 때문이다. ‘大波와 無風일 때’의 사설은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이나 배가 달리는 모습을 노래하는 사설이 많다. 구연 현장인 바다에 바람은 없고 큰 물결인 ‘놀’이 치므로 노를 젓는 동작은 완만한 편이기 때문이다. ‘小波와 無風일 때’의 사설은 가창자의 개인적 정서를 노래하는 사설이 많다. 激波와 逆風이 불 때보다 노 젓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배의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小波와 順風일 때’의 사설은 소망이나 안도감과 같은 개인적 정서를 노래하였다. 바다가 잔잔하고 순풍이 불면 돛 달고 갔지만 순풍이 아주 약하게 불어올 때는 돛을 달고 노를 저었기 때문이다. ‘목[項]을 지날 때’의 사설은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는 사설, 사공과 해녀들이 一心同力하여 노를 젓는 사설이 많다. 목은 물살이 세고 빠르기 때문이다.

노 젓는 노동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파도가 세거나 노를 빠르게 저어야 할 때는 ‘이여씨, 저라저라, 저라백여라’와 같은 가락 없는 후렴을 부른다. 사설은 발산형 사설보다 수렴형 사설을 중심으로 가창한다. 사설 내용이 노 젓는 일을 독려하고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도가 잔잔하거나 노를 천천히 저을 때는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씨’와 같은 가락 있는 후렴을 부른다. 사설은 수렴형 사설보다 발산형 사설을 중심으로 가창한다. 구연 현장인 바다가 안정된 상황이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애정 문제 같은 생활 감정을 노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 참고문헌

자료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84, 227면.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265면.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484면.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249~250면.
제주방언연구회,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105~106면.
제주시(조영배 채록), 『제주의 향토민요』, 제주시청, 2000, 93면.
진성기, 『제주도민요』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69면.
진성기, 『제주도민요』제3집, 성문프린트사, 1958, 88면.
화북동 운영위원회 편, 『화북동 향토지』, 화북동 운영위원회, 1991, 239면.

논저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89~93면.
김영돈, 「해녀노래의 기능과 사설분석」, 『흔미 최정여박사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177면.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민속원), 1993, 221면.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92면.
김용배, 『전라남도방언연구』, 학고방, 1998, 293~294면.
김재원, 『서해도서조사보고』, 을유문화사, 1957, 153면.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 유형 분석」, 현지김영돈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81~134면.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교섭양상」, 『한국민요학』 제22집, 한국민요학회, 2008, 199~249면.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백록어문』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327면.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사설과 현장성」, 『은지논총』 제8집, 은지학회, 2002, 191면.

이창식, 『한국의 유희민요』, 집문당, 1999, 43면.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68면.

(주)두산,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주)두산 출판BG, 2000.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25~226면.

田口禎熹, 洪性穆 譯, 『濟州島の 海女』(『朝鮮』 218號, 昭和 8年(1933) 7月), 『濟州
島の 옛 記錄-1878~1940-』,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81면.

泉靖一 著, 洪性穆 譯, 『濟州島』(1966),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185~186면.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03.

논문투고일: 2009. 3. 23. 심사완료일: 2009. 4. 3. 게재확정일: 2009. 4. 3.

❖ Abstract

Classification and Types of the Narrations of <Women Divers' Rowing Song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xt

Lee, Seong-hun

This study aims to analyze narrations of <Women Divers' Rowing Song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xt according to the chances of singing and of reciting the narrations, thus to classify types of narration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reciting the narrations and of rowing motions. This is because it becomes possible to properly analyze and understand <Women Divers' Rowing Songs> only when the facts are clarified as to which narrations were recited when according to the chances of singing and as to which narrations were recited in which way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reciting the narrations.

The chance of singing <Women Divers' Rowing Songs> was the labor of rowing to go diving or to move to the mainland. Also, the site of reciting was the sea, which was subject to frequent changes in the current, direction of wind and wave height according to climate conditions. Accordingly, it was found important to classify types of narrations with an emphasis placed on the circumstances in the sites of reciting and the chances of singing.

Based on the chances of singing, the narrations of the <Women Divers' Rowing Songs> are classified per ① going out to the sea for diving, ② returning from the sea after diving and ③ moving to the mainland, etc.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sea as the site of reciting the narrations, classification is made per ① in times of violent wave and adverse wind, ② in times of great wave and no wind, ③ in times of gentle wave and no wind, ④ in times of gentle wave and fair wind and ⑤ when passing through narrow straits, etc.

The narrations of <Women Divers' Rowing Song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in the site of reciting and rowing

motions. One is when the wave is violent or when fast rowing is required. The other is when the wave is gentle or when rowing is done slowly. For the former, the tuneless refrain of 'Iyeossa(이여싸), Jyeorajyeora(저라저라), Jyeorabegyeora(저라백여라)' is sung. As for the narration, convergent narrations are mostly recited rather than the divergent. This is because the contents of narrations can be a way of encouraging the act of rowing and of executing instructive functions. For the latter, the refrain of 'Iyeodosana(이여도사나), Iyeosana(이여사나), Iyeossa(이여싸)' with a tune is sung. As for the narration, divergent narrations, rather than the convergent, are mostly recited. This is because the sea, as the site of reciting, is in stable conditions, therefore the circumstances are suitable for the women divers' to lament their misfortunes or to sing about emotional issues in life, such as of love, etc.

Key words : Women Divers' Rowing Songs, the chances of singing(가창기연), reciting the narrations(구연현장), Women Divers', Classification of the Narrations, Types of the Narrations, refrain, sea